

高麗時代의 질그릇(土器)

鄭 明 鎬

一 高麗時代의 土器에 對한 考察

序 言

高麗時代의 陶土磁工藝品중에 아마도 當代生活必需用器로 가장 一般的으로 널리 利用되었던 容器類는 이미 新石器時代부터 開發發展되어 내려온 질그릇類로 推定된다.

一般的으로 高麗時代에 國民들중에 上流社會로부터 下層에 이르기까지 高下를 莫論하고 다같이 生活用具로 쓰여졌으리라 믿어지는 질그릇은 後世人들에게 關心과 注目에서 疏外당해 오고있는 作品으로 取扱되어오고 있는 要素라고 하겠다.

世上에 널리 알려진 當代에 陶土磁工藝器중에 優雅하고 高貴한 品格을 지니고 있는 優秀한 外來技術을 導入하여 開發한 靑磁系工藝品은 高麗時代工藝品의 代名詞格으로 世人들의 憧憬과 讚辭와 愛好속에 사랑 받고 있는데 比해 질그릇은 보잘것 없는 것으로 冷待당하고 賤視당하고 또는 無關心 속에서 꾸준히 그의 傳統性을 繼承하고 命脈을 保存하여 朝鮮時代를 걸쳐 現代에 이르기까지 繼續民衆에게 쓰여지는 生活容器라는데 우리들은 도리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現在까지世上에 널리 알려진 高麗時代以後 今世紀에 이르는 陶土磁工藝品으로 基本的인 用器로써 土器類에 對한 學的인 關心度 또한 疏外되어 考古學이나 美術史的인 立場은 물론 骨董學的

인 立場에서도 輕視當해 一編의 學的인 論文조차 없는 서글픈 처지에 놓여 있는 分野이라는 데 痛感되어진다.

筆者는 그동안 庶民工藝로 取扱되어온 甕器店에 對한 關心을 갖고 一九六七年부터 數年에 걸쳐 全國에 散在해 있는 甕器店을 調査하면서 아울러 질그릇(土器)店을 調査한 적이 있었다.

또한 一九八二年부터 一九八三年에 걸쳐 全羅北道高敞郡雅山面龍溪里에 所在해 있는 高麗初期 純靑磁窯址를 發掘調査를 主管하였을 때 窯의 廢棄物이 堆積된 遺構속에서 靑磁破片和 匣鉢 및 질그릇 破片이 多量出土되었다는 點에 注目된 바 있었다.

또한 全羅南道康津郡大口面龍雲里一帶에 散在해 있는 窯址중에 靑磁破片和 匣鉢 및 土器破片이 多量同伴되어 있는 遺蹟을 調査한 바가 있어 매우 興味를 갖게 한 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靑磁破片和 土器破片이 混合되어 出土되는 것으로 미루워 아마도 高級陶磁器를 生産하였던 砂器店에서 微賤한 土器도 같은 工房에서 生産하였던 것이 아니겠느냐에 對한 推測을 불러 일으키게 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高麗時代의 陶土磁工藝品을 生産하였던 대장들은 土器도 成形하고 磁器도 成形할 뿐만 아니라 土器를 生産한다고 하여 어떠한 身分의 差等を 갖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은 土材를 가지고 成形하는 어떠한 作品이라도 萬能的으로 製造가 가능함을 暗示해 주고 있다.

이러한 要素를 미루워 볼때 陶工들의 成分과 이들의 技術的인 所養에 對한 考察에 있어 再考하여 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또한 高級製品으로 取扱되어온 磁器類와 土器類를 混同하여 生産하였던 時期의 限界線은 어느 時期부터 分離될 수 있는 가를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事業은 一朝一夕에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며 이를 밝히려면은 철저한 考古學的인 調査가 並行되어야 할 것이다.

즉 窯址調査에 對한 再考가 時急하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諸般事가 現今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이때에 이를 論한다는 것은 매우 難堪한 일이라 하겠다.

또한 高麗土器에 對한 關心이 學界는 물론 一般社會에서도 疏外되고 있는 實情이기 때문에 이들에 對한 充實한 資料를 提供할 받지 못한 때 高麗土器를 論한다는 것은 時機尙早라 하겠다.

그러므로 筆者는 地表調査에서 혹은 發掘地에서 調査된 資料와 圓光大學校博物館에 所藏된 資料와 湖林博物館資料를 基礎삼아 簡單히 整理하여 後學者의 도움을 남기려 한다.

二 土器의 概念

土器는 陶土磁工藝중에 一分野로써 즉 窯工藝상에 있어 가장 原始的이며 오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한바 크다.

人間은 불(火)을 발견함으로써 즉 불을 自由로 管理 利用 運營함으로써 비로소 自然에 對한 挑戰이 始作되었다고 하겠다.

이로 인해 人間은 最初로 불을 利用하여 創造物을 生産하기에 이르렀다.

創造物은 바로 土器 즉 질그릇의 生産이라 하겠으며 이로 인해 비로소 오랜기간 지속되어 왔던 石器時代를 脫出하여 새로운 世代를 形成하게 되었다.

즉 石器時代에 對한 挑戰으로 第一次自然에 對한 革命期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우리는 自然에 對한 挑戰期를 新石器時代라고 부르고 있다.

新石器時代에 이르러 비로소 소위 自然에 挑戰하는 一環으로 科學이 登場하게 되었다. 自然物의 利用에서 벗어나 人爲的인 造形物의 製造行爲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應用科學의 登場으로 自然의 資源인 흙(土壤)과 物理 化學的인 變化를 促進시키는 要素인 불(火)을 人間이 自由自在로 利用 管理하고 이

를 利用하여 必要로 하는 容器인 질 그릇을 創造하게 되었다.

人間이 불을 運營管理할 수 있는 能力을 發揮함으로써 人間文明과 科學發展에 寄與하기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人間이 物理的인 方法에 의하여 所謂科學的인 方法에 의하여 石器의 製作이 實施되었다고 하겠으나 이 곳에서 進一步해 불을 利用한 化學的인 方法을 導入하여 마침내 人間이 有用하게 利用할 수 있는 造形物인 질 그릇을 創造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질그릇은 일반적으로 토기(土器)라 칭하는 것으로 가장 원시적인 방법에 의해 낮은 온도에서 구워진 것을 말한다.

즉 질인 粘土를 이용하여 물그릇(날그릇)인 토제를 만들어 일정기간 동안 습기를 건조시킨 후 연료(燃料)를 사용하여 구워낸 것을 말한다.

이것은 온도의 상승에 의해 二〇〇°C에 달하면 질(점토)중에 혼합된 물(水)이 탈수(脫水)되며 六〇〇°C가 되면 결정수(結晶水)가 된다.

결정수가 탈수되는 과정을 넘어 그 이상으로 가열(加熱)하게 되면 질(점토)중에 함유되어 있는 탄소(炭素C)가 산화되어 산화염(酸化鹽)과 유산염(硫酸鹽)이 分解되어 보통 건조된 粘土質과 다른 질로 변화하게 된다.

이때에 온도는 七〇〇°C~八五〇°C 정도가 되며 이 온도에서 생성된 작품을 일반적으로 土器 즉 질그릇이라고 칭한다.

이상과 같이 七〇〇°C~八五〇°C 사이에서 구워진 질그릇이 발생하기에 대하여는 명확치 않으나 이란(Iran) 지역에서는 테페-아쉬아부(Tepe-Asiab)에서 구 B·C·7·〇〇〇~五·七〇〇 사이의 질그릇문화층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註 1)

한편 日本에 있어 九州地方에 散在해 있는 先史時代遺蹟을 비롯하여 福井洞窟에서 發見된 隆起文土器遺蹟의 絕對年代는 一、二、四〇〇~一、三、五〇〇 B·P와 一、二、七〇〇~一、五〇〇 B·P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므로 福井洞窟의 隆起文土器는 紀元前 一〇、〇〇〇. 前後에 생산된 세계최고의 질그릇으로 日本사람들은 자부하고 있으나 아직공인되지 못

하고 있다.

1. 한국의 신석기시대의 질그릇

한편 朝半島에 있어서 先史時代의 代表的인 빗살무늬질그릇의 絕對年代를 밝힌바에 의하면 B, C, 四〇〇〇年頃으로 推定하고 있다.

빗살무늬질그릇의 최고년대를 B, C, 四〇〇〇년대로 보이는 유적으로 는 서울의 岩砂洞유적과 慶南 上老大島遺蹟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빗살무늬질그릇보다 앞서는 질그릇의 遺蹟이 存在하고 있음은 近年에 밝혀 졌다.

釜山の 東三洞貝塚를 비롯하여 江原道東海岸지방에 鰲山里유적등지에 서 日本의 隆起文질그릇과 類似한 隆起文질그릇이 빗살무늬遺蹟에 앞서 즉 層位상 빗살무늬층보다 밑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같이 빗살무늬 질그릇이 발견되는 층위보다 앞서는 낮은 층에서 용기문질그릇 계통이 발견됨으로써 이 용기무늬 질그릇의 발생시기가 빗살무늬질그릇보다 앞서는 것임을 암시해 주는 것으로 推定할 수 있다고 하겠다.

용기무늬 질그릇이 출토되는 대표적인 유적지는 釜山の 東三洞貝塚과 江原道鰲山里遺蹟으로서 前者는 五八九〇±一四〇B, P라는 放射性炭素年代測定値가 밝혀졌으며 後者는 七二二〇±七〇〇B, P라는 질대년대를 얻어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질그릇이 出現되는 시기는 늦어도 七一〇〇±七〇〇B, P년대 즉 B, C, 五〇〇〇여년경 이전부터 존재해 있었음을 직감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용기무늬 질그릇의 분포지는 東北海岸地帶에서는 江原道 陽鷲山里로부터 釜山東三洞의 南海面과 西海南部 小墨山島 등지에 서 조금씩 出土되고 있으며 이들의 그릇모양은 원저(圓底)와 평저(平底)의 鉢形系統이 主流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無文平底질그릇과 공반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점차 북방에서 흘러들어오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는 빗살무늬 질그릇의 영향에 의해 소멸되었을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註 2)

어쨌든 용기문질그릇은 빗살무늬질그릇이 널리 유행되었던 시기의 유적층에서는 그 흔적을 전혀 찾아 볼수 없는 것으로 미루워 빗살무늬 질그릇이 생산되었던 시기에는 용기무늬질그릇 계통은 마침내 소멸형상이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빗살무늬 질그릇은 전 한반도에 걸쳐 분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까지는 全羅道와 忠清道에서는 출토현상이 희소하다고 보고 있다.

빗살무늬 질그릇은 북방의 Siberia系統의 기화문질그릇(幾何文土器)의 전통을 갖고 있는 丸底土器가 출토되는 지역과 평저(平底)의 질그릇의 그릇모양으로 나눌 수 있다.

평저(平底)의 질그릇이 出土되는 南端限界線에 있어서 東便은 江原道 襄陽鰲山里가 되며 西便은 平安北道唐山貝塚에 이르고 있다.

즉 빗살무늬원저질그릇의 北端限界는 鰲山里와 唐山에 국한 되고 있다는 말이 되고 있으며 아울러 빗살무늬 평저질그릇도 그리 볼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저(圓底)질그릇은 평저용기무늬 혹은 빗살무늬질그릇의 한 계선을 넘어 북쪽에서도 출현되는 경향이 보인다. 다만 무문질그릇일 경우에는 어떠한 한계선을 남겨놓지 않고 한반도 전역에서 출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한반도에서 출토된 신석기시대의 질그릇의 표면장식은 대체로 세부류로 나누워 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무무늬 용기무늬 빗살무늬로 대별되며 바다에 경우는 평저와 원저로 구분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편 이들의 그릇모양 즉 종류를 살펴 볼것 같으면 尖底深鉢形을 비롯하여 平底深鉢形, 鉢形, 外反鉢 注口鉢, 有頸壺 壺 外反口緣壺, 有頸把手附壺, 大接, 盞, 곰달린盞, 盃 二重口緣土器, 孔列土器, 丹塗磨研土器, 磨研土器 등의 生活用器가 出現되고 있다.

이들의 재료는 질인 粘土를 主材料로서 淸川江以南地域에서 出土되는 질그릇의 경우는 滑石(활석)과 石綿이 배합되어 있으며 淸川江以北에서는 砂粒을 섞은 경우가 많으며 서울의 岩寺洞系에 속하는 弓山里, 智塔里를 비롯하여 金灘里에서는 雲母와 石粒이 혼합되었다고 한다.

金灘二式질그릇일 경우에는 滑石 또는 石線을 配合한 資料도 발견되고 있다.

西浦項第一層에서는 石粒혹은 貝殼을 배합한 예도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질그릇의 燒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二〇〇°C~八五〇°C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들의 燒成施設인 가마시설은 명확히 밝혀진바 없으나 대체로 露天窯로 推定하고 있다.

이들의 가마구위에 있어서 그릇안치는 그릇을 바로 놓지않고 아구리 즉 口部를 地面을 향해 놓고 구웠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그릇 표면이 赤色 및 갈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미루워 산화염(酸化焰)에 의한 것으로 推定된다.

2. 靑銅時代질그릇

청동기시대는 신석기시대와 여러면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우선 석기에 경우 후자는 타제석기계통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빗살무늬질그릇으로서 표면색은 적색과 적갈색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한편 전자인 경우에는 마제석기를 비롯하여 전통적인 적색과 적갈색 질그릇계통과 흑색 혹은 회흑색 질그릇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청동기시대를 무문토기(질그릇)시대라고 칭하기도 한다.

무문토기라 하면 빗살무늬 질그릇에 대한 무늬가 없는 질그릇을 말하는 것으로서 뚜렷한 定義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시기에 나타나는 질그릇은 앞서 빗살무늬 질그릇이 발견된 西浦項 第五文化層에서 밝혀진 孔列그릇계통이 계승되어 유행된듯이 많은 유적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시대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팽이형질그릇이 성행된듯하다.

한편 청동기 말기에 들어서면서 紅陶와 점토대질그릇(粘土帶土器)등과 같은 종류가 이시대의 나타난 대표적인 유물중에 하나로 등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바닷흙(바탕흙)에는 滑石과 모래 등을 배합하였으며 燒成은 有蓋窯로서 不燃燒 상태에서 옷을 입히는 施設을 갖추어 있는 것으로 推定되나 이 역시 충분한 가마시설을 찾지 못하고 있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생활용 질그릇과 더불어 발생한 질그릇은 墓制에 사용된 甕棺을 들 수 있다.

甕棺은 靑銅器時代에 發生된 葬禮用具로서 이는 질그릇系인 항아리와 돌을 이용하여 死亡者의 屍身을 保管하는 施設을 말한다.

이 施設은 세가지 형태로 발전하였다. ①은 單甕棺 ②는 合口甕棺 ③은 三合口甕棺 등으로 區分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항아리 혹은 돌을 주제로 하고 부속기구로 자배기나 대형대야(大匣)와 같은 것을 이용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청동기시대 이전의 생활용기인 질그릇은 한결같이 표면색을 적색 혹은 적갈색을 들어내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는 酸化焰에 의한 露天窯에서 가마구이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時代에 들어서면서 가마시설과 기계시설인 물레를 사용하여 그릇을 비쳐내는 단계에 까지 발전되었음을 유물을 통해 이해된다.

이 곳에서 주목되는 바는 주거지에서 발견되는 질그릇의 대부분은 적색 혹은 적갈색계통의 질그릇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묘제(墓制)에 사용되는 儀器에서는 흑색(黑色) 혹은 흑갈색(黑褐色) 등이 발견되고 있다는데 매우 흥미로운 일이라 본다.

그러나 주거지에서도 간혹 회색(灰色)계통의 질그릇도 발견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유적은 黃海道 松林市石灘里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상으로써 靑銅器時代의 질그릇을 살펴 보았으며 이들은 종래의 빗살무늬질 그릇계통과 중국의 華北地方에 仰昭文化보다는 龍山文化에 영

향을 많이 받아 마침내 韓國의 독특한 팽이형질그릇을 발전시켰다.

한편 孔列土器는 赤峰山系統의 평저빗살무늬계통의 질그릇과 함께 威鏡北道茂山郡茂山邑虎谷里에서 출토되고 있다.

그러므로 팽이형질그릇은 西北系에 속하는 것이고 孔列질그릇은 東北系統에 속하는 것으로 이들은 漢江流域에서 결합되어 양계통이 공존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하겠다.

이 곳에서 孔列질그릇은 土鼓의 可能性을 提示한바 있으므로 靑銅器時代에는 전형적인 樂器의 出現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시대의 한국적인 특징을 들어보면 粘土帶질그릇은 한반도는 물론 日本과 中國의 遼東半島까지 전파하였음은 주목되는 바라 하겠다.

靑銅器時代末期부터는 本格的으로 中國의 鐵器文化가 傳波됨에 따라 陶土工藝의 새로운 發展狀을 보이고 있다.

3. 初期鐵器時代(原三國時代) 질그릇

中國華北地方의 離山文化圈에 영향받아 이룩된 팽이형질그릇이 西北地域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한편 Siberia를 비롯하여 赤峰山系統으로 東北地方에서 형성된 孔列질그릇이 漢江流域에서 結合 혹은 共存하면서 이地域의 特徵인 粘土帶질그릇系統의 질그릇을 개발하여 새로운 文化要素로 登場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질그릇과 더불어 灰青色硬質질그릇과 軟質灰色질그릇 粗質灰色질그릇, 赤褐色硬質질그릇, 硬質無文질그릇 등으로 많은 종류의 질그릇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여러 종류의 質에 의해 이루어져 있는 이 질그릇을 金海式土器 熊川式土器 風納里無土器 등의 名稱이며 널리 통용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청동기시대 말로부터 三國時代사이에 과도기에 發生된 文化要素로 바로 初期鐵器時代 질그릇이라 하겠다.

이들이 集中的으로 발전되는 地域은 漢江流域 東津江流域 榮山江流域 洛東江流域으로서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들의 특징은 기계시설인 물레와

도구의 사용이 있는 것으로, 신석기시대나 청동기시대의 질그릇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제조방법과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가마구조의 개선이라는 점이다.

즉, 질그릇의 질이 質軟에서 硬質로 점차늘어나는 한편 그릇의 색깔도 적색계통에서 灰色 및 灰青色系統이 主流를 이루고 있다는 이 시기에 많이 사용되었던 점이다.

그릇표면에 보이는 색깔과 더불어 有文과 無文이 함께 쓰여지고 있는 데 많이 쓰여진 무늬는 格子文 繩蓆文 單純線文 橫條短線文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들의 그릇종류는 항아리 종류를 비롯하여 器台 高坏, 甕, 鉢 등이 있다.

특히 주목되는 그릇형태는 小形圓底廣口壺 壺形질그릇 甕形질그릇 付壺形질그릇 罍形질그릇 시루 집시 등 많은 종류의 그릇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이시대의 특징있는 질그릇으로는 쇠뿔과 같은 손잡이가 그릇 좌우에 덧붙여 있는 것으로 그릇 밑은 원저(圓底)의 질그릇의 출현이라 하겠다.

이 쇠뿔형 손잡이가 달리는 그릇은 대체로 壺形과 深鉢形질그릇에서 그類形을 찾아 볼수가 있어 注目된다.

쇠뿔손잡이는 두 종류로 구분되는 것으로 그 하나는 쇠뿔형이고 다른 종류는 組合式이다.

이상과 같이 많은 종류의 그릇모양을 통해 그의 기능을 생각해 볼 때 일상 생활용그릇과 의식용 즉 제사(祭祀)나 묘제(墓制)에 사용되는 두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다는 점이다.

청동기시대 이전에는 생활용기와 의식용기가 특별히 구분화되지 않고 혼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나 청동기시대 말 초기철기시대에 들어서면서 聖器나 祭器를 새로 개발하였다는 점은 사회구조의 복잡성을 들어 내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들의 바닥흙의 성분은 대체로 모래, 질, 뽕흙 등으로 배합되었으며
燒成溫度는 六〇〇C~一〇〇〇C에 달하고 있다.

高溫의 질그릇이 生産됨에 따라 夜體物을 貯藏具로 利用可能性을 보
이게 되었다.

貯藏具는 壺 혹은 紅(항아리) 大甕 등으로 壺일 경우에는 S字形을 따
르고 있는 形態가 首位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같은 질그릇은 紀元前三世紀를 前後하여 露天窯의 原始的인 酸
化焰土器窯로부터 中國大陸에서 開發發展된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還元
焰系가 마구조와 燒成技術의 導入 즉 第二次 青銅器文化 流入期와 同時
期에 該當되는 第一次鐵器文化가 北韓地域에 傳波됨으로써 始作되게 되
었다.

이 文化的要素는 점차적으로 南下하여 서울特別市江東區風納洞 所在
百濟初期城址에서 發見된 陶質인 印文硬質질그릇과 같은 有紋질그릇을
비롯하여 無文灰色질그릇 黑色磨研질그릇계통이 流行하게 되었다.

한편 洛東江流域을 中心으로 第二次로 中國華南의 湖熟文化要素가 流
入되어 마침내 所謂 新羅土器와의 過度期的인 印文의 硬質土器가 諸江
沿岸과 慶南道海岸에 發達된 所謂 金海式 혹은 熊川式질그릇과 같은 새
로운 양식의 질그릇을 생산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들의 그릇표면의 장식무늬는 繩席紋이 主流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
에 紋樣은 擬似繩紋, 格子紋 印紋等을 들 수 있다.

繩席紋은 中國商代以後 戰國과 漢初에 流行한 代表的인 紋樣이 되고
있다. 이 무늬와 함께 유행된 格子紋과 印紋은 楊子江地方에서 많이 쓰
였던 것과 類似한 무늬인 것으로 미루워 兩地域과 文化交流가 있었음을
暗示해 주고 있는 증거라 하겠다.

이 時期는 第二次鐵器文化流入期로써 A, D二世紀頃에 該當된다.
第二次鐵器流入以後 約二世紀 사이를 原三國時代라는 새로운 文化時
代를 形成하기에 이르렀다.

즉, 初期鐵器時代는 B, C, 四~B, C, 二세기 사이에 發達을 보아온 硬

質無文질그릇과 粗質灰色질그릇이 漢江流域을 中心으로 發見되고 있
며 B, C, 二C에 들어서는 赤褐色硬質土器와 灰青色硬質질그릇계통은
全國規模로 發見되고 있다는 점에서 注目된다.

이 곳에서 初期鐵器時代의 질그릇은 대체로 三期로 구분할 수 있는 것
으로 前期에는 硬質無文질그릇이 代表的인 文化要素 및 基準形이 되고
있다.

中期에는 赤褐色硬質질그릇이 代表的인 基準그릇으로 보고 있다.

後期는 灰青色硬質질그릇이 그 代表形으로 보고 있다.

이와같이 初期鐵器時代에 盛行된 질그릇은 시기를 달리하여 발전형상
을 찾아볼 수 있다는 데 의의를 갖게 한다.

4. 三國時代의 질그릇

韓半島內에 있어서 本格的으로 部族國家의 形態가 形成된 時期에 對해
文獻資料에 의할 것 같은면 古朝鮮時代부터라 하겠으며 이때의 해당되는
時代는 古朝鮮 箕子朝鮮 衛滿朝鮮 三韓등이 存續했던 時期라 하겠다.

이 時期에 生産된 유적과 유물에 對한 構體的인 研究가 이룩되지 못
해 이 時代의 질그릇(土器)에 대한 研究도 부진한 狀態라 하겠으나 이
時期는 大體로 原三國時代에 該當되는 것으로 推定된다.

三國時代에 있어서는 그들의 活動範圍가 대략 확정되어 있으며 비교적
時代區分이 용이하며 遺蹟 遺物에 對한 規明이 可能하다.

三國時代는 北쪽의 高句麗, 中西南部에는 百濟 東南部에는 新羅가 차
리를 잡고 所謂鼎立時代의 特徵을 들어내고 있다.

(1) 高句麗의 질그릇

高句麗時代의 文化的인 要素로서 世上에 널리 알려져 있는 分野는 古
墳壁畫와 古墳構造 金石文등이라 하겠으며 소량의 질그릇에 對하여 이
미 紹介된 바 있다.

高句麗前期에 만들어진 질그릇은 비교적 소량의 모래가 혼합된 질을
素材로 낮은 온도에서 구워진 軟質로서 表面에는 磨研한 褐色과 黑色系

統이混在해 있다.

이時代에 만들어진 질그릇은 한결같이 물레를 이용하였다는事實이다. 한편 軟質질그릇과 더불어 이미 原三國時代인 初期鐵器時代부터 새로 도입된 密閉式 有蓋窯式에 의해 구워진 硬質系도 만들어 내었다는事實도 첨가되어야 할것이다.

그릇모양은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까지 계승된 심발형질그릇(深鉢形土器系를 비롯하여 廣口壺, 短頸壺, 長胴壺, 雙耳壺, 四耳壺, 雙耳鉢, 四耳瓶, 有蓋壺, 釜形壺 등이 있으며 有蓋碗, 大椀 碗자배기 접시(椀匙) 耳坏 甌 大匣 및 뚜껑(器蓋) 등이 있다.

① 深鉢形질그릇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선사시대부터 청동기시대까지 유행한 그릇모양으로서 다른점은 黑色磨研深鉢이라는 점으로 밀은 평저로 이는 平北魯南里南坡洞住居址에서 發見된 生活그릇임을 알려주고 있으며 軟質의 還元焰에 의한 製品이다.

② 壺種類로는 廣口壺를 비롯하여 短頸壺, 長胴壺, 雙耳壺, 四耳壺, 有蓋壺, 釜形壺 등의 七種이 있다.

廣口壺는 넓은 아구리(아가리)에 짧은 목이 달렸고 몸체는 둥그스름한 단지이다.

表面에는 磨研한 것과 磨研하지 않은 것이 있으며 무늬裝飾을 한 것도 있다.

裝飾무늬는 가로 두 줄기의 평행선을 근 사이에 평행사선을 매끈양식을 반복하여 그릇배부분을 장식하였다.

또는 수직배열의 점선무늬(點線文)으로 장식한 예가 있다.

이들은 대체로 질속에 모래를 약간 배합하고 있음을 찾아 볼 수가 있었다.

短頸壺에 있어서는 머리부분이 짧은 S字形의 단지로써 磨研製品과 磨研하지 않은 製品으로 나누워 진다.

색깔은 靑灰色를 비롯하여 黑色 褐色 黃褐色 黑灰色 灰白色 黃色 硬質灰色 등의 多彩로운 色狀의 질그릇이 있다.

이들중에는 輯安山城下墓區 第一. 二號 基壇積石塚에서 發見된 제품에서는 草葉무늬를 裝飾하였다.

또한 輯安山城下墓區 第一九五號 基壇積石塚에서 發見된 資料에서는 波狀文과 평행複線위에 가로 八字文 즉 사선무늬장식을 어깨부분에 장식하였다.

또한 安鶴宮址 第三號墳에서는 硬質灰色短頸질그릇이 발견되었는데 짧은 목과 어깨사이에는 돌대가 둘러 있다.

돌대의 출현은 慶尙北道星州郡星州邑禮山洞에서 發見된 組合式牛角形把手附壺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註 3)

長胴臺는 短頸壺와 구분되는 것으로 短壺. 짧은 목에 아구리가 外反하고 몸체인 배가 球形에 가까우면서 동동한 것이 일반형이며 밀은 평평하다. 長胴臺에 있어서는 短頸壺와 類似하나 몸체가 홀쭉하고 타원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特徵이 되고 있다.

그릇의 表面색은 灰色과 灰靑色을 발하고 있으며 바닥쪽의 성분은 질속에 모래를 약간 배합하였다.

이들 종류에는 대부분 軟質이며 若干의 硬質의 질그릇이 포함되어 있어기도 하다.

裝飾무늬는 連續鋸齒文을 비롯하여 格字무늬등을 裝飾한 例도 있다. 高句麗의 항아리형의 질그릇중에는 구가 달린 作品이 비교적 자주 보인다.

구는 대체로 두기가 달린그릇과 네귀달린 그릇이 있다.

귀(耳)의 모양은 꼭지형 고리형 원공형으로 구분된다.

귀달린 그릇종류로는 아구리가 넓고 높은 목을 가춘 단지를 비롯하여 네귀달린형, 밀굽달린 네귀방구리로는 半球形에 가까운 몸체에 목이 없고 넓적한 아구리는 밖으로 약간 外反하였으며 外反하였으며 몸체는 밀부분이 퍼져 있다.

두귀달린 보시기모양의 것으로 아구리가 넓고 키가 짧막하고 목이 없는 그릇으로서 이는 平北魯南里南坡洞住居址에서 발견된 것이다.

③ 바리(蓋碗)은 방구형. 몸체에 넓적한 아구리 변두리에는 뚜껑과 맞물리도록 홈을 냈으며 밑창에는 극히 낮은 굽이 달려 있다.

허리부분에는 네출의 줄무늬가 돌려 있으며 뚜껑도 반구형을 이루고 있으며 꼭대기에는 보주형의 꼭지가 달려 있다.

이 뚜껑의 어깨에는 네출의 줄무늬가 돌려 있다.

④ 대접(大椀)은 작은 납작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벌어진 몸체에 넓 은 아구리를 가진 종류와 곡형의 몸체를 가진 두 종류가 있다.

⑤ 보시기(碗)은 네종류가 있는데 아구리가 외반된 것과 넓게 버려진 것 아구리가 좁고 깊이가 있으며 납작 밑이 있는 것. 몸체는 등그스럼하 고 밑창에는 낮은 굽 모양으로 된 턱이 있는 보시기 종류가 있다.

⑥ 자배기 ⑦ 접시(標匙) ⑧耳杯 ⑨ 시루(甌)

一九四九年 黃海道安岳郡龍順面安岳에서 發見된 第三號 壁畫古墳에서 주목되는 高句麗人들의 生活風習畫를 남기고 있다.

이 壁畫중에 廚房具들을 묘사한 속에 시루와 같은 설치물이 부두막 위 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같이 高句麗人들은 시루를 사용하였음을 입증되는 실물자료가 北倉郡大坪里를 비롯하여 魯南里南坡洞, 土城里 등의 여러 住居址에서 發見되었다.

이들의 住居址에서 發見된 시루의 색깔은 赤褐色系와 黃褐色系가 주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루어진 질그릇제조방법이 다른 것으로 추정된다.

시루에 시설물로는 머고리손잡이를 쌍혹은 네 곳에 마련하였다.

以上과 같이 여러 종류의 질그릇 외에 ⑩ 대야(大也) ⑪ 그릇뚜껑(器蓋) 등의 질그릇 종류의 예 그릇 표면에 釉質을 입힌 製品彩文陶器의 出現으로서 이들은 靑銅器時代以前에는 生産된 바 없었던 것으로 高句麗時代에는 多彩로운 生活容器의 發達이 있었음을 暗示해 주고 있다.

또한 이 高句麗人들은 多種多樣한 生活用器와 廚房具 文房具 등을 製作한 것으로 미루어 生活樣式이 多樣함을 暗示해 주고 있다.

(2) 百濟의 질그릇

三國중 百濟는 半島의 中西南部에 位置한 高句麗에서 分派된 나라로

서 政治的인 理由로 首都를 三회에 걸쳐 옮겨야 할 애처로운 悲運의 나 라라고 하겠다.

政治的인 現狀과 같이 文化的인 要素面에 있어서도 地域을 달리하면 서 그의 特徵을 여실히 들어내 주고 있다.

現서울 江東區를 中心으로 建國한 百濟는 紀元一世紀부터 公州地方으로 遷都할 때까지 사이에 널리 쓰여졌을 것으로 推定되는 黑陶를 비롯 하여 黑色磨研無文질그릇 繩蓆文질그릇 牛角形손잡이 질그릇 甕棺 및 硬質系질그릇이 보이고 있다.

이들은 靑銅器時代의 傳統을 繼承하기도 하였지만 大陸地域에 盛行된 強力한 새로운 文化 技術을 내폭적으로 받아들인 흔적을 들어내주고 있다.

이와같이 新技術文化를 大布의 으로 받아들인 百濟는 피치 못한 事情으로 公州地方으로 遷都하고 다시 百濟의 번영을 위해 五世紀中葉에 들어서면서부터 泗泚地方인 扶餘로 遷都하였던 것이다.

이러는 사이에 百濟地域에서는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時期를 달리하면서 窯工藝의 發達 및 變遷觀계를 여실히 보이고 있다.

A, D, 三世紀 中半부터 四世紀 中半에 들어서면서 生活用容器와 더불어 祭器와 葬禮器資料가 두드러지게 눈에 띄고 있다는 點이다. 甕棺과 더불어 器舊와 高杯의 出現이라 하겠으며 有孔廣口小壺 長頸壺, 頭頸壺 등이 代表的 器種이 되고 있다.

이들중에는 表面에 繩蓆紋과 格子紋이 支配的으로 이와같은 무늬는 大陸文化에 강한 영향이 한눈에 보이는 듯하다.

五世紀로부터 六世紀初半에는 新羅와 伽倻地方에서 유행되고 있는類 形의 질그릇인 손잡이잔(把手付盞)을 비롯하여 高杯形器臺 등이 종종 보 이고 있다.

六世紀 中半期부터 七世紀 中半期에 들어서면 새로운 모양의 그릇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代表的인 製品은 長鼓形器臺 四耳瓶 三足질그릇 釉陶 人工施釉器 등으로 이들은 한결같이 中國 南朝地方에서 盛行된 文化的技

術要素가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注目된다.

뿐만 아니라 佛教文化要素를 다분히 들어내주는 藏骨器의 登場에서 當時葬制에 對한 一面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藏骨器인 질그릇과 더불어 佛教的인 要素가 다분히 내포되고 있는 그릇으로서 는 질그릇淨瓶이며 이 瓶은 後代 高麗질그릇병에 큰 영향을 미친 듯하다.

이외에 질그릇계통으로는 陶硯 慰斗 燈臺, 便器 등의 다채롭게 발달되고 있다.

이 곳에서 百濟窯工藝는 中國新窯施設을 導入하여 登窯施設로 소위 煨還焰系窯 燒成法에 의해 灰色과 黑色, 黃色 등의 軟質질그릇을 비롯하여 瓦質과 硬質질그릇을 生産하였으며 질그릇 成形은 타라쌍기와 씨리技法을 받아들여 드렸으며 機械施設로는 물레와 도개 수레 근개발가쇠 홈칼, 감재비 등의 여러 도구를 使用하였으며 軟質의 灰色繩文질그릇은 수비에 의해 正선된 질을 이용한 듯 매우 고운 질을 사용하고 있어 고구려나 신라의 질그릇과는 구분되어 주목된다.

(3) 新羅의 질그릇

韓半島東南部に 位置한 新羅時代의 질그릇은 洛東江의 東西地域을 통괄한 嶺南 또는 慶尙道地域에 散在한 遺蹟에서 發見된 질그릇으로서 粘土性이 강하고 鐵分이 多量含有된 질을 갖고 燒成(구워낸)한 것을 말한다.

燒成度는 대략 1,000°C ~ 1,100°C의 높은 온도로 구워낸 硬質로서 陶土磁分類學上 磁器(Porcelain)보다도 약한 炆器(Stoneware)에 該當되는 種類들이라 하겠다.

이들은 질속에 함유되어 있는 硅酸質이 높은 온도에 의하여 表面에 噴出하여 釉藥질을 하지 않아도 유리화되어 透水性이 없는 단단한 硬質의 질그릇들로서 新羅에서는 高句麗와 百濟보다도 일찍이 生産하였다.

물론 硬質질그릇에 앞서 軟質질그릇도 구워졌지만 차차 이들은 紀元前後하여 中國으로부터 流入되었을 것으로 推定되는 수래질 질그릇 즉 打

捺紋질그릇의 出現으로 급격히 변화를 갖게 되었다. 이들은 靑銅器時代에 一般的으로 만들어진 無文질그릇의 제조기술에서 벗어나 도구(道具)를 사용하여 그릇벽을 단단하게 하고 높은 온도에서 그릇을 구워낼 수 있는 甁불통가마 양식의 등가마시설을 이용하여 靑灰色질그릇을 만들어 내었다.

한편 灰色瓦質系統질그릇을 비롯하여 赤色軟質질그릇도 함께 만들어 내었다.

신라의 瓦質질그릇은 대체로 紀元一世紀부터 三世紀에 걸쳐 만들어진 조합구형 과수부원저항정경호(組合牛觸形把手付圓底形長頸壺)를 비롯하여 外反口緣壺, 有台長頸壺(밑이 나팔형으로 벌어진 굽을 붙인 長頸壺) 등으로 質은 瓦質이다.

이들은 密陽邑 내이동, 釜山市구서동, 蔚州郡하대, 高星宗천리, 金海예안리, 慶州朝陽洞 등에서 發見된 질그릇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의 瓦質질그릇단체를 벗어나 三世紀末 四世紀初에 들어서면서 靑灰色硬質질그릇으로 發展하였으며 이들 계통을 일반적으로 熊川 또는 金海式질그릇이라고 부르고 있다.

熊川·金海式靑色질그릇은 新羅·伽倻질그릇의 母體가 되고 있다.

이들의 질그릇은 打捺繩蓆紋 또는 格子紋으로 장식된 赤褐色 또는 靑色圓底短頸壺를 비롯하여 平底花盆形 등이 代表的인 것이라 하겠으나 高杯形질그릇은 아직 採用되지 못한 것 같다.

四世紀에 들어서게 되면 長頸圓底繩蓆文灰白色瓦質質질그릇이 나타나는데 이종류는 生活用器라기 보다는 葬器로 많이 使用된 듯하다.

本格的인 新羅질그릇은 有蓋高杯 有脚長頸壺 把杯가 나타나기 시작한 時期로 金海府院洞 具塚 A區로 이는 대략 紀元二五〇 ~ 三五〇년대로 보고 있다. (註 4)

즉, 古新羅의 初期질그릇은 府院洞期에 들어서면서 無孔高杯가 凸條短頸壺를 비롯하여 有透孔·有蓋高杯 등의 그릇모양에 靑色硬質그릇으로 發展하게 됨으로서 비로소 新羅질그릇 또는 早期新羅질그릇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新羅時代 질그릇은 크게 두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其一是 三國時代의 新羅이고 其二是 統一新羅로 區分하고 있다. 前者인 三國時代의 新羅는 早朝 前期中期後期로 細分하고 있다.

一、早期

赤褐色질그릇系統의 소멸과 灰青色질그릇의 主流를 이 르면서 短頸壺를 비롯하여 直立短頸有脚壺, 高杯 有孔脚長頸圓底壺長頸壺形小杯 器臺 등으로 特히 金海질그릇의 無脚形式에서 有脚器로 轉換되었다는 事實인 特徵이 되고 있다.

二、前期

高杯에 경우 無孔無蓋式이 消滅되고 변형된 무공각고배(無孔脚高杯)와 有孔脚式의 高杯가 登場되고 短頸壺는 白立式과 外反式의 두 種類가 口緣樣式이 보이며 長頸壺, 有脚器臺, 무늬는 장경호의 頸部에 凸條로 上下二分되고 波狀集線紋이 主流를 이루고 있다.

三、中期

高杯에 경우는 다리가 낮아지고 다리는 圓錐形으로 透刻이 좁아지고 長頸壺에 있어서는 口緣部가 테를 갖춰 처럼 옆으로 突出한 盤口 또는 段口形式이 出現하였다.

紋樣은 鋸齒文 圓半圓列紋이 蓋와 肩部에 나타나고 있다.

裝飾으로는 질그릇제인 璽珞이 첨가되고 있다.

四、後期

三國新羅時代의 後期는 六世紀後後半으로부터 千世紀初에 걸친 期間에 生産된 陶土磁工藥品으로서 特徵을 보이는 것으로는 圓錐形高杯다리와 이 곳에 뚫린 아주 조그만 구멍이라 하겠다.

아울러 有蓋高杯는 계속 존속되고 있었으며 長頸壺는 盤口形이 一色으로 다리의 구멍은 如前히 二段配置이고 頸部에 施紋된 中間部의 凸條가 사라지며 無紋인 것이 優勢現象을 들어 내고 있다.

즉 長頸壺에 있어서 上下 二區分된 長頸二段區分된 有孔脚의 樣式은

이 時代의 代表的인 樣式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統一新羅期の 질그릇

統一期질그릇의 決定的인 資料는 鴈鴨池에서 發掘된 資料에 基準하여 文樣 其他技法의 特色을 찾아 보고자 한다.

統一期에 있어서 질그릇을 基準삼아 前期와 後期로 配分하여 살필 수 있을 것이다.

(一) 前期

前期에 製造된 질그릇인 오지그릇은 三國期에 비하여 多樣性을 들어 내주고 있다. 特히 瓶의 出現이라 하겠으며 아울러 施資器의 自體的으로 生産하였다는 事實이다.

이 時期에 流行된 그릇 종류는 高杯 長頸壺 扁球壺形瓶 蓋盒등을 들 수 있다.

이 時期에 製造된 그릇 중에는 統一과 더불어 凡國際의 이라고 할 가 百 濟의 인 要素와 中國의 西域의 인 要素가 그릇모양과 技術의 인 特性이 가 미되어 있다는 데서 注目되기도 하다.

紋樣으로는 波狀文·印花文

(二) 後期

後期에 特徵的인 질그릇은 角形(角面)질그릇의 出現이다.

鬱陵島北面天府洞에 所在해 있는 한 古墳에서 高杯 四耳壺 角瓶이 一 九六三年에 發掘調査에 의해 밝혀졌다. (註 5)

이 時期의 代表的인 오지그릇은 長頸瓶 角瓶 方圓瓶장군 굽접시등이 라 하겠다.

以上과 같이 선사시대부터 청동기시대까지는 手造질그릇이 主流였던 것이 靑銅器時代末 初期鐵器時代에 이르러서는 물레와 가마시설에 의한 換選焰系의 黑色黑青色 灰色등의 질그릇과 硬質의 오지그릇이 제조되 었다. 이 初期鐵器時代와 原三國時代에 들어서면서 질그릇제작에는 도 구의 사용과 물레사용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찾아 볼 수가 있다.

三國時代와 統一時代에 들어서면서 그릇을 빚는 데에는 종전의 陶技

法에서 소형의 제품은 砵技法으로 轉換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워 製造 技術의 向上을 엿볼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以上과 같이 선사시대로 부터 統一新羅時代까지에 걸쳐 질그릇의 變遷과 그릇종류 및 紋樣등을 대충 살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희박한 자료를 통해 고려시대의 질그릇과 오지그릇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三 高麗時代 질그릇

고려는 政治上으로 볼때 建國初期에는 武臣出身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점차 新羅의 六頭品系列의 文班貴族들이 支配貴族으로 등장하면서 文武 兩班體制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뿐 아니라 科擧制度를 실시하여 鄉吏들에게 文班職으로 進出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武士의 인 성격에 所有者였던 地方豪族들을 文班職으로 吸收하였다.

同時에 文班出身에 限해 二品以上の 宰相職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文班優位體制를 形成 確立하였던 것이다.

한편 高麗는 宋과의 親密한 關係를 맺게 됨에 따라 빈번한 文化的 交流에 의해 工藝美術의 接觸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當代中國에서는 名聲 높은 越州窯와 邪窯, 長沙窯와 같은 곳에서 製造된 磁器類의 接觸과 이를 充足하고자 하는 慾望에서 마침내 새로운 窯業 術의 導入과 貴族階級の 獎勵로 마침내 世界的인 優秀한 靑磁를 生産하게 이르렀다.

이러한 靑磁를 生産할 수 있도록 뒷받침은 一朝一夕에 이루어 질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오랜 전통적인 기반과 수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 基礎的인 基盤이란 바로 질그릇점의 役活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理由는 앞서 言及한바와 같이 太平壬戌二年(一〇二二)銘이 있는 平瓦片이 發見된 初期純靑磁窯址인 全羅北道高敞郡雅山面龍溪里所在 窯址를 비롯하여

高敞郡雅山面盤岩里

全羅北道鎮安郡聖壽面道通里

京畿道龍仁郡二東面西洞

全羅南道康津郡六口面龍雲里

全羅南道康津郡六口面桂栗里

全羅南道康津郡七良面三興里

全羅南道海南郡山二面珍山里草雲里

等地的 靑磁窯址에서는 靑磁破片和 질그릇과편과 함께 窯廢棄物堆積層에서 찾아볼 수 있어 주목된다.

이와같이 靑磁窯址에서 질그릇과편이 發見된다는 것은 同一한 가마에서 경우에 따라 수여 공급에 따라 질그릇 혹은 磁器를 生産하였음을 암시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日人學者 小山富士夫에 의하면 開城附近의 옛 住宅址일 것으로 推定되는 地域을 踏査할 때 地表에 散在해 있는 尤물과편 중 灰黑色의 질그릇과편이 압도적으로 많고 靑磁破片은 매우 적은 양이 있는것을 觀察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註 6)

이 곳에서 小山富士夫가 踏査한 地域이 어느 階層이 生存하였던 區域인지는 알수 없으나 宣和奉使 高麗圖經에 의할것 같으면 開城內에 民居에 대하여(註 7)

「王城雖大 磽确山壘 地不平曠 故其民居形勢 高下如蜂房蟻穴 誅茅爲蓋 僅庇風雨 其大不過兩椽 比富家稍置瓦屋 然十纔一二耳」

라 하듯 開城市內에 住宅중에는 大部分 草家였으며 瓦屋은 稀少한 數字였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同書 卷第二十三雜俗二施水條에 의할것 같으면

「王城長廊每十間 張帘幕設佛像 置大瓮貯白米 漿復有杯杓之屬 恣往來之人飲之 無問貴賤 而以僧徒主其事」

라 하듯 施水하고 白米를 貯藏具로 大瓮을 마련하여 授護 및 救濟施設로 利用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同書 雜俗 土產條에

其果實 栗大如桃 甘美可愛 舊記謂 夏月亦有之 嘗問其故 乃盛陶器埋土 中 故經歲不損 六月亦有含桃 味酸如酢 椹極極鄭刻 多云

에서도 과일을 저장하기 위해 陶器를 땅속에 묻어 보관할 뿐 아니라 조미료인 酢를 저장용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同書 卷第三十二 器四三 瓦尊條에 의하면

「王之所飲曰良醞 左庫清法酒 亦有二品 貯以瓦尊云云」

라고 하듯 二品の 清法酒를 瓦尊에 貯藏하였다는 記事와 同書 藤尊條에 의하면

「藤尊乃山島州郡所資也 中亦瓦尊 外以藤周纏之 舟中嶮峴相擊不損 上有封緘云云」

한바와 같이 藤尊중에 瓦尊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同書 卷第三十二 器四三 水瓮條에 의할것

水瓮 陶器也 廣腹斂頸 其口差敝 高六尺 濶四尺五寸 容三石二升云云 라고 한바와 같이 水瓮 즉 물항아리는 陶器로서 넓은 배에 높이가 六尺 넓이가 四尺五寸 容量은 三石二升到 달하는 큰독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

同書 卷第三十三 供水條에

「海水味割鹹苦不可口 凡船舶將過洋 必設水櫃 廣壺甘泉 以備食飲 蓋洋中不甚憂風 而以此水之有無爲生死耳 華人自西絕洋而來 既已累日麗人科 其甘泉必盡 故以大瓮載水 鼓舟來迎 各以菜米酬之」

라 하듯 船舶에 食水 저장시설을 가추워 있음을 밝히면서 그 시설 중에 큰독을 사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以上과 같이 高麗圖經에 간단하게 소개되는 資料중에는 그의 규모라던가 用途 또는 그 곳에 담는 물건의 종류등을 세분해 밝히고 있다.

질그릇중 독종류는 日常生活에 必需具로써 食水貯藏具와 酒貯藏具를 利用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워 이러한 施設具는 적어도 每戶當 一個以上을 가추워 있을 것이며 조미료인 酢容器를 비롯하여 醬類를 저장施設등을 참작 할때 질그릇 수자는 더 많을 것으로 推定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基本施設의 破壞와 취락지의 폐허지(廢墟址)에 남아 있는 것으로는 瓦當과 더불어 질그릇과 편등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小山富士夫의 踏查記를 보고 충분히 이해될 것이다.

즉, 民居의 대부분은 草家라는 사실과 食水用貯水具 醬類酒類 果實米穀등을 貯藏하는 施設을 질그릇과 항아리를 使用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聚落의 廢墟로 질그릇과 편만이 옛날의 성쇠를 보여주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高麗는 앞서言及한바와 같이 生活容器의 大部分은 질그릇이 主流를 이루고 있음은 新羅時代 生活容器와는 별 차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질그릇은 平民뿐만 아니라 貴族들의 家庭에서도 日常生活 容器는 勿論 貯藏容器로도 使用되었을 것으로 推定된다.

貴族層에서도 질그릇을 使用하였음을 밝히는 資料로서 神宗元年(一一九八)에 死亡한 宋子清의 무덤에서 밝혀졌다.

一九二一年에 京畿道開豐郡嶺北面月古里 宮女洞에 所在地에서 出土된 資料중 青磁無文瓶一點 白磁無文瓶一點 無文질그릇병一點 있음을 밝혀졌다.

宋子清은 安州鄉吏 出身으로 趙位寵亂을 진압한 功勞로 中央의 武班職에 임명된바 있는 將軍이다.

그러므로 宋子清은 平民이 아니었으며 武班職을 갖고 있었던 貴族이다.

이와같이 社會的으로 上流階層에 있는 이 무덤에서 질그릇이 青磁와 같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貴族社會에서도 磁器와 더불어 使用되고 있으며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서는 오히려 이것이 더 많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갖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最近 慶州의 皇龍寺址와 扶餘 定林寺址를 發掘調査에 의해 밝혀진바에 의하면 많은 量의 生活容器資料가 밝혀짐으로써 더욱 確實하게 입증해 주고 있다.

定林寺址發掘調査는 一九七〇年度에 忠南大學校 博物館 發掘調査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 調査에 의해 高麗時代의 生活질그릇 資料 수점을 소개하고 있다.

發見된 질그릇종류를 살펴 볼것 같으면 질그릇손잡이 파편을 비롯하여 磁形질그릇 접시 燈臺, 異型질그릇 등을 들 수 있으며, 百濟時代에 製品인 陶硯 紡錘車 瓶形질그릇 뚜껑, 三足질그릇 蓋杯 등도 함께 伴出된 바 있다.

調査者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磁形土器(질그릇)

「灰色軟質의 磁形土器 또는 그 破片이 多量으로 出土되었다. 이들은 대개가 胴體에 橫走하는 굵은 線條文을 나타내고 있고 胎土에 모래알을 적지 않게 포함하였으며 粗雜하게 製作된 軟質土器임을 特徵으로 하고 있다. 胴體에 나타나 있는 굵은 線條는 土器의 製作方法으로 利用된 粘土帶의 捲上法(Cai method)에 의하여 생긴 것이다. 器形은 대개가 平底의 磁形土器들이며 이들과 함께 굵이 달린 磁形土器들도 섞여서 發見되었으며 그 數量上의 比率은 八:二程度가 된다고 짐작된다. 그러나 胎質과 製作方法은 거의 同一하며 色調는 灰色 또는 灰白色의 것이 제일 많은데 黑灰色의 것도 더러 있었다. 크기는 口徑이 一五cm 内外로 만들어진 것이 제일 많이 發見되었으며 높이는 七cm 内外인데 굵이 달린 것들 중에는 口徑 一八cm 높이 八, 八cm에 達하는 것이 있다. 한편 작은 磁形土器로서는 口徑 一〇, 五cm 높이 五cm의 것도 存在한다. 以上과 같은 磁形土器들은 주로 東廻廊址 附近에서 많이 發見되었으며 高麗時代의 平瓦片들과 섞여서 發見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다. (註 8)

軟質의 灰色磁形질그릇은 三種類가 있으며 바닥에는 많은 양의 모

래가 배합된 질을 사용하였음을 밝히고 있으며 이들은 高麗時代 개와속에서 많이 발견되었으므로 확실한 고려시대의 질그릇임을 밝히고 있다.

접시類

「灰色 灰白色 또는 淡黑灰色의 軟質土器로 燒成된 접시類의 破片도 적지 않게 發見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器形上으로 大小의 種類가 포함되었으나 굵이 달린 접시들은 發見되지 않았다. 例外的인 것으로 暗紫色의 硬質土器에 속하며 底面에 三重으로 된 單線圓圈文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접시의 破片들 중에는 百濟時代에 製作된 遺物도 섞여 있어 있을 수 있겠으나 大部分은 高麗時代에 使用된 것들인 것 같으며 磁形土器들과 胎質色調들이 비슷하다.」

이 곳에서 이 접시종류는 두종류가 있으며 이들의 바닥과 質이 앞서 소개한 罈과 비슷한 것이 主流가 됨으로 이것 또한 高麗時代 製品으로 보고 있다.

燈 臺

「小形의 접시 또는 磁形土器들이 發見되었는데 이들 중에는 燈臺으로 使用된 種類가 포함되어 있다. 內底中央에 燈心을 두기 위한 突起部가 있으며 이들은 다른 곳에서 發見된 高麗時代의 遺物들과 比較해 볼때 역시 그 製作年代는 高麗時代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들은 軟質로써 淡黑灰色 淡灰色 灰褐色이며 이들중 灰褐色燈臺에는 內底에 特別한 施設物은 없으나 그림이 붙어있으므로 燈臺으로 보고자 한다고 한다.

異型질그릇

「異型질그릇이라고 이름한 土器는 垂直口緣을 가진 圓筒形 平底土器들을 가리키는데 口緣部에서 아래로 六cm 内外의 位置에 水平으로 突起된 넓은 전을 만들었으며 또 胴體의 左右兩便에는 橫位橋狀把手가 달려 있다. 다른 土器들과 比較하면 그 形態는 큰 편에 속하며 口徑이 二〇cm 内外의 것이 적지 않다. 色調는 大部分이 灰色의 軟質土器들이며 위에서 說明한 磁形土器의 破片들과 섞여서 적지 않은 數量이 發見되었

다. 그 器型으로 미루어 보아 炊事用的 술과 같은 容器로 使用된 高麗 時代土器의 한 種類로 생각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以上과 같이 定林寺址에서 發見된 鎭그릇계통의 그릇들은 한결같이 軟 質이라는 점과 灰色 및 灰黑色系임을 밝히고 있으며 이들은 대체로 高麗 기와편과 混합되어 發見되는 것으로 미루워 고려시대 鎭그릇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以上으로 學術調査에 의해 生活鎭그릇의 실태를 살펴 보았으며 文獻상에 보이는 鎭그릇의 用途등도 아울러 살펴 보았다.

鎭그릇의 종류

현재 고려시대의 鎭그릇의 종류를 명확히 밝힐수 없는 것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高麗圖經에 보이는 그릇명칭에 對해서 일반적인 용기를 가리키는 用語로는 器皿이라는 술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鎭그릇에 해당하는 용어로서 大瓮水瓮 등이 있으며 瓦尊이 보인다.

그 외에 용어로서는 盃, 椀, 甌, 盃, 湯, 盞, 酒尊 등의 名稱이 보이고 있으나 이들은 鎭그릇인지 磁器類인지는 밝힐수 없지만 대체로 磁器類에 속하는 各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定林寺址調査에 의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器種은 大甕類와 壺, 시루, 바래기 등잔. 盃 등이 밝혀지고 있을 뿐이다.

고려의 鎭 그릇은 신라말기에 등장하는 그릇과 유사하여 구분하기가 곤란한 점이 적지 않으며 현재 널리 알려져 있는 종류로는 병(瓶)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히소한 예이지만 양푼 자배기 단지 등의 생활용기가 밝혀지고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뿐 아니라 수자상으로 많은 종류는 鎭그릇병으로서 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一) 도깨비장식 네귀병(사진 一)

경북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고열에 의해 어깨부분에

綠釉가 덮혀있는 것으로 表面色은 灰青色을 띄고 있다.

그러나 그릇벽에 나타난 形상을 보아 바닥에는 많은 양의 굽은 모래가 배합되어 마치 거칠게 표면 정리를 한것같이 보인다.

입은 작고 입술은 외반하였으며 낮은 병의 목에서부터 급경사를 이루면서 떨어진 긴어깨를 형성하였다.

어깨부분이 최대 폭으로 하여 차차 밑까지 내려가면서 좁히고 있다. 즉 형은 완만히 빠져서 바닥에 이르렀는데 목 밑에서부터 굽 가까이 까지 물레를 따라 위에서 부터 차츰 굽어진 橫帶가 쳐 있다.

이 병에는 목 가까이에 도깨비를 나타낸 四개의 꼭지를 달아 장식하였는데 이 꼭지 옆에 각각 구멍이 뚫려 있다.

이 꼭지가 마련된 밑에 한줄의 굽은 波狀무늬장식을 하였다. 이는 물레성형으로 질재기 타래쌓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네귀병과 유사한 계통으로서 자라병이 있다.

(二) 도깨비장식 자라병(사진 二), (三)

대구 張桂煥所藏과 湖林美術館所藏品에서 그 예를 찾아 볼수 있다. 전자는 고려초기 형태를 취한 자라병형식을 따른 병이다.

작은 盤形口緣形을 갖춘 고려 특유의 모습은 드러낸 이 병은 비교적 많은 모래가 배합되듯 黑灰色을 띄고 있다.

成形은 물레위에서 수래질하였으며 어깨부분이 가장 幅이 넓으며 밑까지 곡형으로 감축하여 이루어져 있다.

어깨 양쪽에는 구멍뚫린 도깨비모양의 귀를 달았으므로 이 시설물이 달린 밑에 또다른 구멍뚫린 고리장식을 달았다.

위 도깨비장식 위에 一條의 陰刻線帶를 둘렀다. 後者는 前者와 비슷하나 양쪽 側面이 납작한 胴體部를 가진 扁瓶이다

또다른 점은 어깨끝이 角을 이루고 있으며 배부분이 어깨보다 약간 넓어 원뿔형형을 따르고 있으며 표면 정리를 잘 하였다.

표면색은 黑青色을 띄고 있다.

以上과 같이 두 종류의 도깨비귀장식 鎭그릇이 밝혀져 있는데 네귀장

식을 갖춘 병은 골호계통의 것으로 추정된다.

(三) 매병(梅瓶)(사진 四, 五)

현재까지 알려진 매병은 세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其一은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所藏인 참외모양매병계통과

其二은 湖林美術所藏무문매병계통

其三은 圓光大學校 博物館所藏壺形매병계통등으로 세분할 수 있을 것이다.

其一은 盤口形의 작은 입을 갖춘 이 매병은 높은 온도에 의해 어깨부분에 自然袖가 덮혀있으며 탈라된 부분은 허뜨 히끗하다. 어깨는 넓게 벌어져 그대로 흘러 내린 線은 큼직한 上體를 形成하였으며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서 胴體의 1/2지점에 이르러 S字形을 이루면서 넓은 굽주 外反되는 굽다리를 형성하였다. 이와같이 그릇모양을 형성한 어깨부분에서 六개치의 瓜로 골을 내 瓜形매병을 이루고 있다.

이계통의 것으로는 圓光大學校 博物館에 四點 있는데 그중 한점은 어깨부분이 수평을 이루다가 차차 胸腹部에 이르러 가장 넓은 모습의 병양을 보이고 있다.

其二 무무늬매병(사진 六, 七)

盤口形을 이른 典型的인 梅瓶으로서 어깨부분이 가장 넓으며 이곳에는 二條의 單線波狀무늬를 돌리고 다시 밑부분에 辰幅이 넓은 一條의 單線波狀무늬장식을 하였다.

成形은 물레쓰리技法에 의해 이루어진 듯하며 고열에 의해 구웠으나 自然釉의 噴出現象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계통의 작품으로는 梨花大學에 三點있으며 이들중 二點은 수레성형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 圓光大學에도 同形系統이 있는데 이는 肩部가 매우 넓은 반면에 足部에서 外反하는 현상이 둔화되어 있어 퇴화형상을 들어내 주고 있다.

其三 壺形梅瓶

盤口形을 갖춘 이 壺形梅瓶은 梅瓶에서 變形된 것으로 어깨부분이 가

장 넓으며 이곳에서 밑까지 조금씩 감축한 병이다.

고열에 의해 구워져 自然釉가 넓게 임혀져 있으며 黑青色을 띠고 있다.

이 壺形梅瓶계통에서 변형된 瓶形梅瓶도 발생한 흔적이 보인다. (사진 八)

의반된 작은 아구리를 갖춘 이 병은 짧은 목부에서 완곡의 어깨를 이루면서 넓은 胴體部를 따라 완곡선을 형성한 타원형의 높은 병이다.

이는 물레성형으로써 씨리기법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표면색은 灰色을 띠고 있다.

(四) 표주박모양병(瓢形瓶)(사진 九, 十, 十一)

표주박모양의 이 병은 고려시대 병종에 매병과 더불어 대표적인 것으로 청자병일 경우에는 한쪽에 주둥이(注口)를 마련하고 한쪽에는 손잡이를 마련한 예도 있다. 표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고 입밀에 작은 꼭지가 있어 뚜껑을 잡아 매달아 놓는 시설로 보인다.

고열에 의해 구워진 까닭에 어깨부분에는 自然釉가 噴出한 흔적이 보이는 것으로 炆質의 질그릇병이다.

표면색은 灰青色으로 바다흙속에 모래를 약간 배합한 흔적이 보이며 물레성형(물레비지)으로 써리쌓기 기법이 보인다.

대표적인 것은 慶北大學校博物館 所藏품을 비롯하여 湖林美術館에 두개 圓光大學校博物館에 一點 梨花大學博物館所藏品이 알려지고 있다.

湖林美術館에 소장된 作品중 한점은 胴體部에 線文을 橫으로 三條縱으로 五條를 마련하여 마치 참외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목의 볼록한 部分에도 가는 沈線이 二條 돌고 있다. 이 병도 고열에 의해 균 관계로 불탄 쪽에는 自然釉가 噴出된 형상이 보인다.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는 硬質의 炆器로서 그릇모양은 靑磁표주박모양의 병모습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中間목은 매우 가늘고 길며 크고 작은 장경병을 포개어 놓은 모습을 취하고 있다. 가운데 목에는 음각선이 두곳에 돌렸으며 아래병의 어깨에는 물레흔적을 남기고

있다.

윗병의 윗부분에 珠紋이 찍힌 고리가 있고 아래병 어깨에는 고리와 같은 선상에 원공이 뚫려 있다.

(五) 질그릇병(사진 十二)

고려시대 청자병에 이 병과 비슷한 것이 많은 것으로 미루워 고려특유의 병종에 하나로 입은 나팔형으로 外反하고 목은 짧고 가늘어져서 신라의 목긴 항아리와 명확히 구별된다.

어깨는 특별히 나타내지 않았으면서 벌어지다가 거의 밑에 가까와지면서 좁아져 바닥에 연결되었다.

표면에 특별한 장식이 없지만 목 밑과 어깨 부분에는 몇줄의 평행음각 선대(平行陰刻線帶)를 돌렸다.

바닥에는 특별한 굽이 없지만 매우 안전되게 놓일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외에 두개가 더 있으며 그중 한개는 胴體에 굵은 沈線으로 세로 六줄 가로 四條線을 그어 격자무늬를 형성하고 있다.

어깨위에 透孔한곳에 뚫었으며 바닥은 평저이고 바닥흙은 정선되어 있다.

이와 유사한 또다른 병 어깨에는 井字무늬를 남겨 놓고 그위쪽에 一條의 음기대를 돌려 있다.

이제통에 병은 湖林美術館과 圓光大學博物館에는 六個가 있다.

이와 같은 계통으로써 주둥이 부분에 盤口形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다

이 盤口形瓶은 이미 統一新羅期에 나타나고 있는 扁球形細頸廣口瓶과는 완전히 구분된다.

이와 같은 계통에 속하는 새로운 형태의 병이 발생하였으니 이는 앞서紹介한바 있는 梅瓶形종에 胴體下部가 外反되지 않은 즉, S字形이 완전히 퇴화된 形態에 細長頸와 短長頸系로 나누워지며 다시 細長頸은 肩部가 변화된 以上の三種類가 發生되고 있다.

其一是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廣口の 盤口形으로 〔字形의 細長한 목을 가추워 있는 瓶이다. (사진 十三)

其二是 其一如 同形으로서 短長頸을 가추워 있다.

其三是 廣口の 盤口形の 長頸을 가추워 瓶은 어깨같이 角形을 이루면서 胴體中下部가 약간 배가 부른 양식이다.

이양식은 다시 短頸과 長頸으로 세분된다. 短頸의 例는 湖林美術館藏을 들수 있으며 長頸은 圓光大學藏을 들수 있다.

(六) 扁瓶
扁瓶이라 함은 胴體部를 單面혹은 兩面 四面에 거의 평평하게 늘려 면을 이룬 병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口緣部가 外反形과 盤口形으로 細分된다.

一 盤口形扁瓶
盤口形扁瓶에 있어서 頸部가 높은 것과 낮은 것으로 구분되는데 이들의 종류를 살펴 볼것 같으면

(一) 盤口形短頸兩扁瓶(사진 十四)
灰黑色의 軟質瓶으로서 수레질成形한 질그릇이다. 肩部와 바닥은 圓形이나 胴體의 兩面을 평평하게 늘려 만든 일반형으로 新羅扁瓶와는 완전히 구별된다.

(二) 盤口形四角扁瓶(사진 十五)
盤口形四角四面扁瓶은 三種類가 있어 長頸 中頸 短頸으로 區分되며 이들도 肩部와 바닥은 圓形을 이루고 있으나 角을 명확히 이루지 못한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 하겠다.

二 外反口形扁瓶
一般的인 外反瓶으로서 長頸과 短頸 두종류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들은 單扁兩扁과 四角扁瓶등으로 나누워진다.

(一) 外反口形長頸四角扁瓶(사진 十六)
일반적인 外反口形長頸四角扁瓶은 灰黑色軟質질그릇 병으로서 肩部에 單線條와 腹部에 複線條를 돌렸으나 胴體部를 四面에서 평평하게 늘려

만든 扁瓶과 타래 쌓기하여 수레질로 성형한 것으로 표면에는 格字文이 보인다.

(六) 外反口形短頸單扁瓶(사진 十七)

灰色의 軟質外反口形短頸單扁瓶으로서 肩部와 바닥은 圓形을 이루고 胴體一面에 한해 평평하게 늘려 만든 것으로 이는 布目紋수레와 도개를 사용하여 수레질성형한 질그릇이다. 어깨부분이 가장 팽창되게 타원곡선을 이룬 병이다.

수레자국이 명확하게 남겨 놓은 것으로 보아 서민용의 扁瓶임을 알 수 있다.

以上の 두 종류의 扁瓶은 圓光大學校博物館에 所藏品이다.

(七) 소병(小瓶)

소형의 硬質질그릇병으로서 外反된口緣短頸瓶과 盤口形短頸瓶 등의 두 종류가 있다.

(一) 外反口緣短頸瓶(사진 十八)

좁은 口徑의 外反口緣은 비교적 넓으며 목은 낮으며 완만경사면을 갖는 것으로 어깨보다 胴體의 腹部가 가장 넓으며 밑에 이르도록 심하게 감축되었다.

바다흙은 精選된듯 하며 裵리技法으로 물레성형하였으며 高熱에 의해 구웠기 때문에 어깨부분에는 自然釉가 얇게 취워져 있다.

색깔은 회색으로 그릇의 배부분에 직경보다 胴腹의 높이가 낮은 것으로 백제질그릇병에 가까운 인상을 남기고 있다.

(二) 盤口形短頸瓶(사진 十九)

경질의 灰黑色 盤口形短頸小瓶으로서 一盤形이다.

어깨부분에 간격을 두고 상하 각 一條의 陰刻線을 돌렸다. 정선된 바다흙을 가지고 裵리技法에 의한 물레성형한 것으로 최대의 팽만부는 胴體의 중앙에 있으며 바닥이 좁아 마치 주판알 모양을 취하고 있다. 圓光大學校所藏.

(八) 만두형병(瓶)

마치 만두모양의 병으로 筒形頸瓶과 短頸瓶으로 구분되어 있다.

(一) 筒形頸瓶(사진 二十)

外反된 口緣을 갖추고 목은 直立한 筒形으로서 약간 높은 편이다. 경질로 灰色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고열에 의해 소성된 까닭에 어깨부분에는 약간의 自然釉가 얇게 噴出되어 있다.

曲形의 경사진 넓은 어깨에는 여러줄의 음각선대를 형성하였으며 낮은 腹部에는 二條의 陰刻線을 돌리었다.

二條의 陰刻線과 어깨 線帶와 넓은 간격을 갖고 있는 中間에는 一條의 波狀紋을 돌렸다.

밑은 매우 넓어 안전하게 안치하도록 마련되었으나 둔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圓光大所藏

(二) 短頸瓶(사진 二十一)

낮은목 외반된 입술을 갖춘 灰色軟質병으로서 병의 胴體中央部가 최대 팽창된 것으로 수레질성형에 의한 흔적이 남아 있다.

최대로 넓은 배부분에 一條의 陰刻線을 간단히 장식하였다.

넓고 급한 경사진 어깨 부분로부터 밑까지 약간씩 감축된 원만한 병모양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투박한 서민용 병으로 추정된다. 圓光大所藏

(九) 장군(사진 二十二, 二十三, 二十四)

灰色의 硬質外反된 口緣을 갖춘장군으로 裵여러형태의 병이 있다.

머리부분이 비대한데 반해 밑부분은 좁고 布目紋의 수레를 사용한 것으로 군데군데 布目紋이 남아 있다.

또다른 장군은 역시 硬質로 배부분이 넓고 머리부분과 밑부분이 좁은 타원형의 장군도 있다.

또한 筒形의 장군등 以上の 三種類가 圓光大學에 所藏되어 있다.

(十) 淨瓶(사진 二十五, 二十六)

淨瓶은 高麗時代 靑磁를 비롯하여 靑銅器製品에서 간간히 찾아 볼 수 있는 보편적인 作品으로 보인다.

湖林美術館에 所藏된 淨瓶은 靑灰色의 硬質로서 裵리技法에 물레비지

성형제품이다.

일반적인 병이나 淨瓶의 경우에는 어깨부분이 등글게 처리된 것이 많은데 비해 이것은 평편한 어깨에 끝이 치켜져 테두리를 돌린 것처럼 되어 있다.

병목의 중간에 매디가 이룬곳에 세워진 注口는 짧은 편이다.

이 淨瓶은 일반적인 淨瓶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瓶口부분에 해당되는 곳에 小圓孔三개만 뚫려 있을 뿐이다. 淨瓶으로서 는 매우 독특한 양식을 취하고 있다.

또다른 類形의 병은 圓光大學 所藏品으로써 일반적인 병을 이용하여 외반된 낮은 口緣部를 매디로 이용한 중앙에 밑은 굵고 口緣部가 좁으며 가늘고 높은 注口를 형성하였다.

어깨부분에 넓은 瓶口를 마련한 것으로 거치른 바다흙을 이용하여 타 泥技法의 黑灰色瓶으로 밑부분이 넓어 안정감을 주고 있다.

이는 서민용임을 상징하는 듯 소박한 질그릇 淨瓶이다.

(一) 질그릇 양분(사진 二十七, 二十八)

연회색의 硬質로써 넓은 口緣에 안으로 오모려진것과 外反된 두종류가 있다.

前者는 梨花女子大學에 所藏되어 있는 것으로 넓고 낮은 그릇이다.

이는 어깨부분이 매우 좁고 가장 팽창된 것으로 밑부분으로 내려갈수록 심하게 축소되었다.

後者는 넓은 밑에 낮고 넓은 입을 가진 것으로 어깨부분이 낮고 밑부분이 긴 이질그릇 양분은 口緣部가 약간 외반되어 있으며 경질의 灰黑色 질그릇이다. 세리技法에 물레성한 것으로 일반적인 양분보다는 각선미를 잘 살린 서민용 그릇으로 이와 유사한 양식은 고구려 벽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二) 질그릇동이(사진 二十九)

灰色軟質로서 口緣部는 水平으로 전을 이루며 밖으로 접힌 형태로 바다는 平底이고 胴體중앙에 가로손잡이를 양쪽에 따로 만들어 붙였다.

이양식은 一九六〇년대까지도 사용된 것으로 이는 여인들이 머리에 이는 물동으로 많이 쓰였던 것이다.

(一三) 질그릇 항아리(사진 三十)

넓은바닥에 낮은아구리를 가진 灰色軟質질그릇으로써 布目紋이 남아 있어 布目紋이 있는 수레를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다.

口緣部는 外反되고 낮은 목을 갖고 있다.

(一四) 注口形질그릇단지(사진 三十一)

소형의 항아리 종류로서 短頸外反된 口緣을 가추워 있는 것으로 口緣二部를 오무려 골을 만들어 注口를 이룬 단지로써 수레질한 흔적이 보인다.

경질의 灰黑色을 띄고 있는 것으로 밑은 평평하다.

(一五) 筒形항아리(사진 三十二, 三十三)

짧은 목에 口緣은 약하게 外反하였으며 胴體는 口緣部보다 조금 넓은 어깨에서 수직으로 내려온 長筒形壺로서 마치 꽃병모습을 하고 있다.

黃灰色 硬質질그릇으로 거치른 바다흙을 사용하였다. 이계통은 현재

梨大와 圓大에 所藏되어 있는데 圓大것은 타래쌓기에 布目紋수레를 사용한 흔적이 여실히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계통으로써 어깨보다 밑이 좁은 양식의 질그릇도 보이며 타원형의 배를 갖춘양식도 보인다.

(一六) 원통형시루(사진 三十四, 三十五)

넓고 낮은 外反된 口緣을 가진 圓筒形시루로써 灰黑色의 軟質질그릇이다.

外反된 口緣에 좁은 어깨에 배부분이 약간 부른 筒形으로 타래쌓기하였다.

밑에 十字형으로 좌우 상하에 각각 二곳씩 구멍을 뚫었다.

(一七) 扁壺

병에 보이는 扁瓶과 같이 항아리 종류에도 扁壺가 있다. 扁壺樣式은 兩面과 四面扁壺가 있다.

이 扁壺系統은 키가 낮은 종류와 키가 높은 瓶形壺로 구분된다.

1, 단지형 扁壺(사진 三十六)

평평하고 넓은 바닥에 통통한 胴體에 外反된 廣口를 갖춘 扁壺로서 兩面을 누른 양면편호이다.

其一是 灰黑色의 軟質로써 布目文을 彫刻한 수레로 벽을 다듬은 것으로 어깨부분에 근거자국을 넓은 띠형을 남기고 있다.

其二是 灰黑色의 硬質器로서 其一과 유사한 製作手法에 의해 성형한 작품이다.

2, 廣口長筒扁壺(사진 三十七)

廣口의 長筒扁壺는 兩面扁壺와 四面扁로 구분되고 있다.

其一是 兩面扁壺로서 硬質과 軟質이 있다. 모양은 大同小異한 것으로 硬質은 廣口外反口緣을 갖춘 것으로 曲形의 어깨를 갖추어 있으며 高熱에 의해 표면에 自然釉가 얇게 덮혀 있다.

또다른 것은 연질로서 어깨끝이 角을 형성한 것으로 어깨에는 넓은 조개피를 남기고 있다.

其二是 廣口外反緣을 갖춘 四面扁壺로써 短頸과 長頸形이 있다.

모두 高熱에 燒成된 것으로 어깨는 물론 胴體에 이르기까지 自然釉가 덮혀 있다.

(一八) 참외모양주전자(사진 三十八)

國立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는 이 질그릇주전자는 고려시대 질그릇제품으로서 전형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이 주전자는 질은 灰黑色으로써 키가 낮고 球形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고 있다.

표면에는 참외모양으로 여러 세로줄무늬를 중심으로 도두라지계 曲線形을 이루고 있다.

작은 뚜껑에도 陰刻線이 있고 꼭지도 참외 꼭지같이 묘사하였다.

한쪽에는 주둥이가 달리고 다른 한쪽에는 손잡이가 달렸는데 손잡이 위와 뚜껑에 구멍이 뚫린 고리가 달려 있어서 서로 끈으로 연결하도록

하였다.

이와 유형으로 청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以上과 같이 一七종에 달하는 질그릇은 일반적으로 생활용기와 葬儀用으로 구분되며 특히 扁壺와 扁瓶은 船舶用具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

結 論

고려청자와 금속공예에 비해 질그릇연구는 미진한 현실은 바로 자료의 회소성에도 그 원인이 있으며 그릇을 생산하였던 가마터 조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데도 그 이유가 된다.

많지 않은 자료를 갖고 고려풜그릇의 종류는 얼마나 되며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를 살펴 보았다.

많지 않은 자료를 통해 고려풜그릇의 특징은 金屬系統과 高級磁器類와 상호간에 깊은 관계를 맺고 기형이 형성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 곳에서 한가지 주목되는 바는 고려시대용기중 가장 발달된 것은 병(瓶) 종류가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다.

또 이 시대에 질그릇중에는 적색계통에 질그릇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도 주목되는 점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기회가 더 있게 되면 고려풜그릇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갖고자 하겠다.

- ① 波井晋司·田邊勝美·ペルシア美術史 一九八三, 吉川弘文館
- ② L.L. Sample: Tonesandon-A Contribution to Korean neolithic culture history. Arctic Anthropology XI-2 1974 madon pp. 1~125.
- ③ 韓炳三: 星州出土一括瓦質土器 尹武炳博士回甲紀念論叢通川文化社 一九八四, 一一二, 二〇B, 一六九, 一八二
- ④ 金元龍: 金海府院洞期の設定 韓國考古學報 二二輯 一九八二
- ⑤ 金元龍: 鬱陵島 國立博物館 一九六三
- ⑥ 小山富士夫: 高麗陶磁序說 世界陶磁全集 一三 朝鮮上代, 高麗篇 一九五五
- ⑦ 徐統: 宣和奉使 高麗圖經卷三 城邑民居
- ⑧ 忠南大學校博物館: 定林寺 定林寺址發掘報告書 一九八一, 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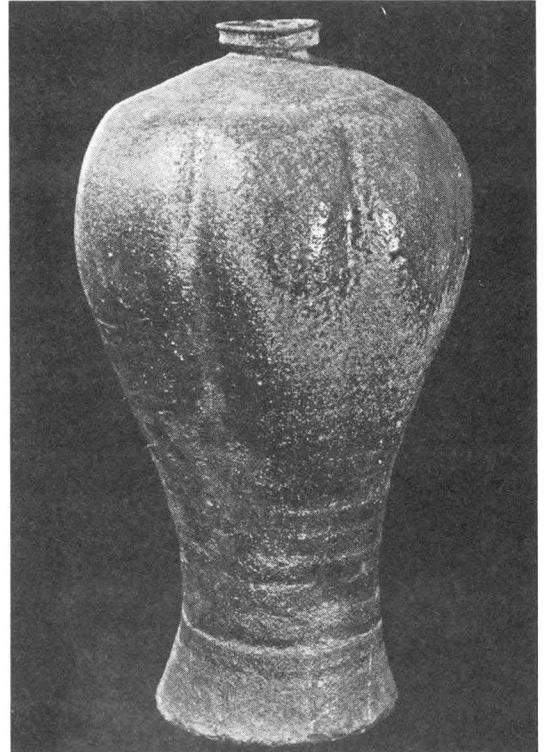
(圖 1) 도깨비장식 네귀병, 慶北大博物館



(圖 2) 도깨비장식 자라병, 대구 張柱煥



(圖 3) 도깨비장식 자라병, 湖林美術館



(圖 4) 梨花子大博物館



(圖 5) 매병, 圓光大博物館



(圖 6) 매병, 湖林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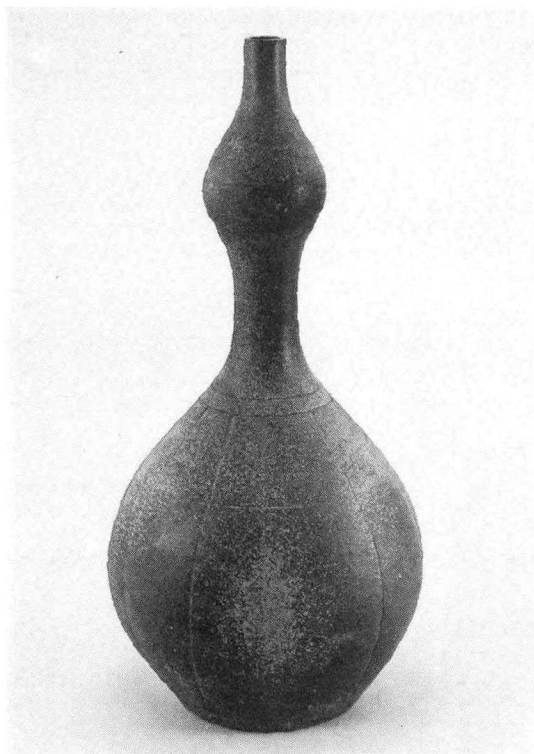
(圖 7) 매병, 圓光大博物館



(圖 8) 壺形梅瓶 圓光大博物館



(圖9) 표주박모양병, 慶北大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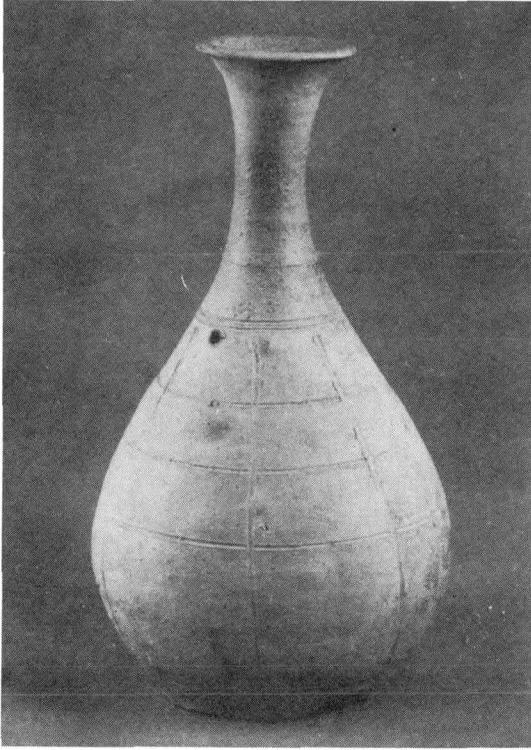
(圖10) 표주박모양병, 湖林美術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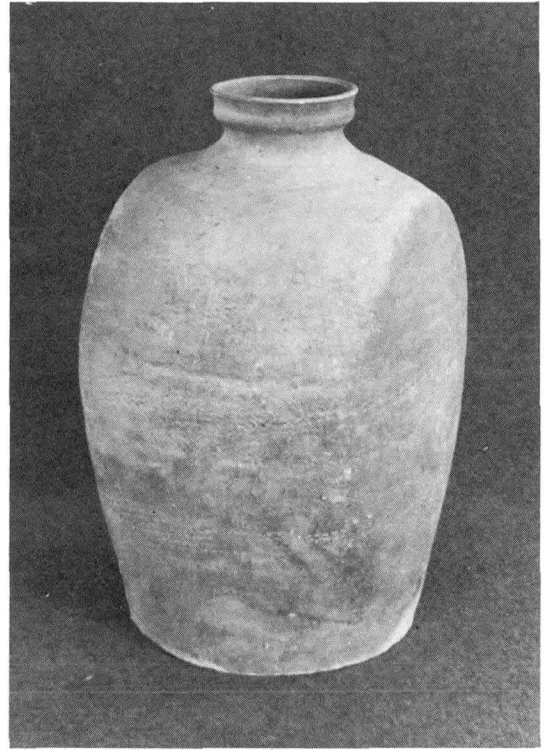
(圖11) 표주박모양병, 圓光大博物館



(圖12) 질그릇병, 梨花子大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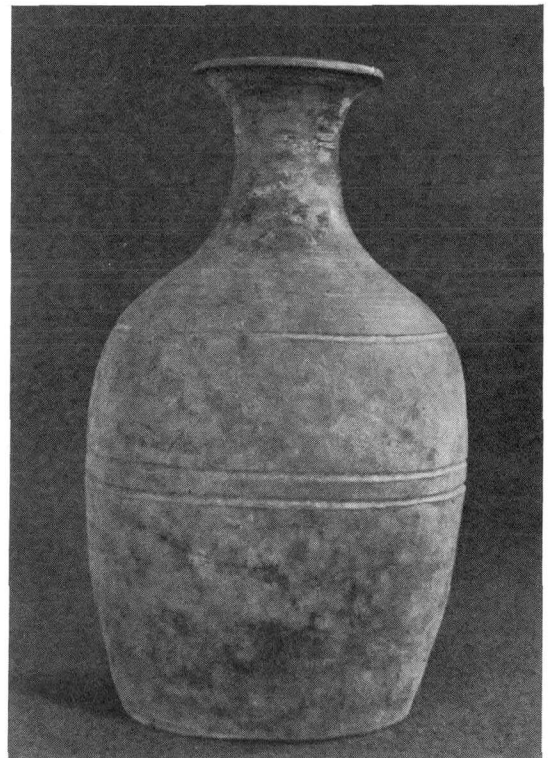
(圖13) 질그릇병, 梨花子大博物館



(圖14) 盤口形短頸 兩扁聯, 圓光大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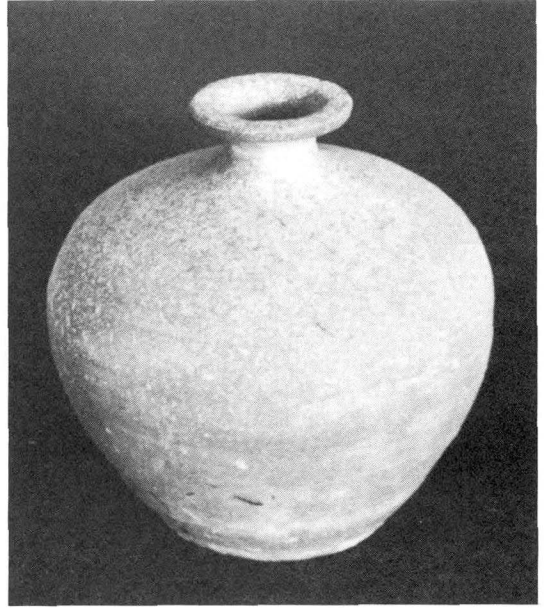
(圖15) 盤口形四角扁瓶, 圓光大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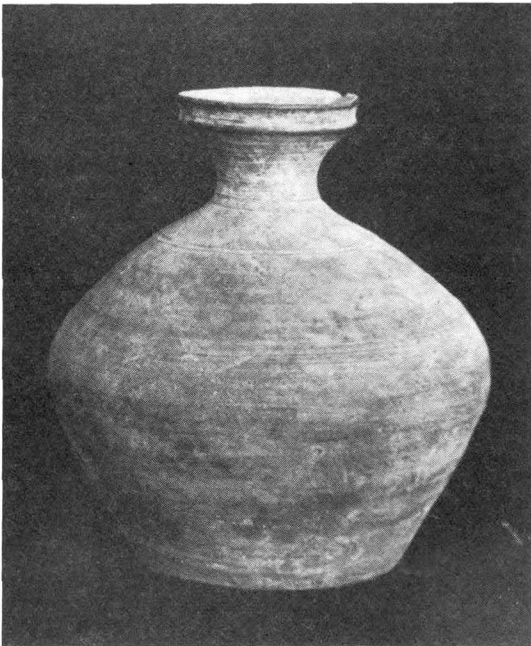
(圖16) 外反形 長頸扁瓶, 圓光大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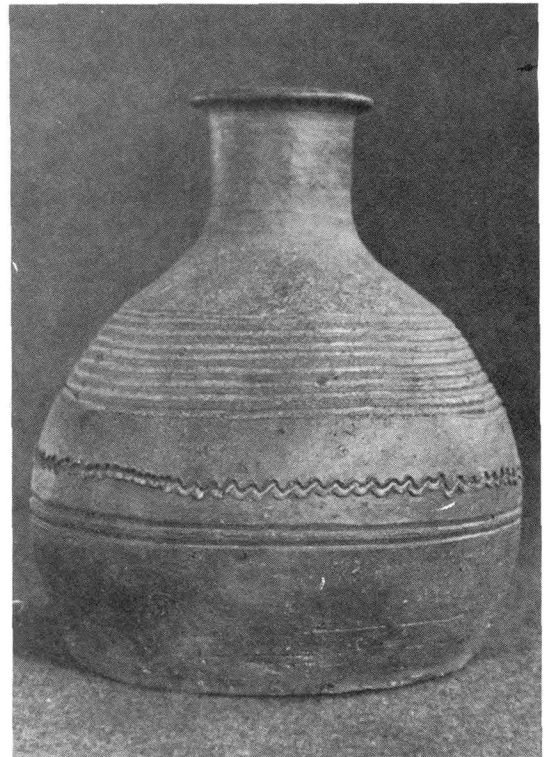
(圖17) 外反口形短頸單扁瓶，圓光大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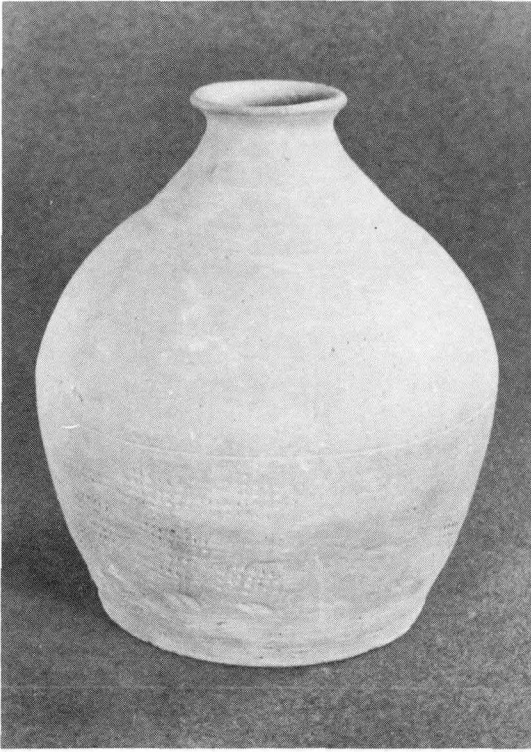
(圖18) 소병, 圓光大博物館



(圖19) 盤口形短頸瓶, 圓光大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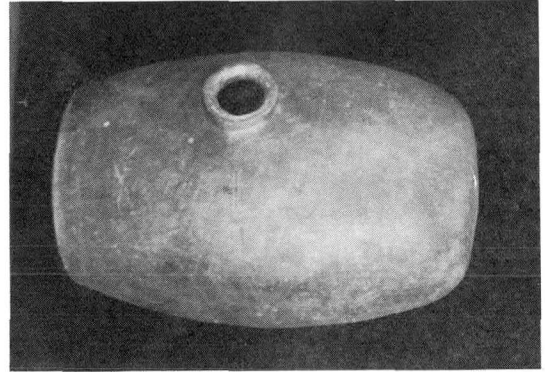
(圖20) 筒形頸瓶, 圓光大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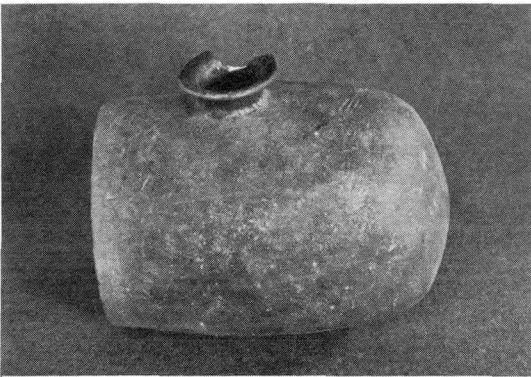
(圖21) 短頸甌, 圓光大博物館



(圖22) 장군, 圓光大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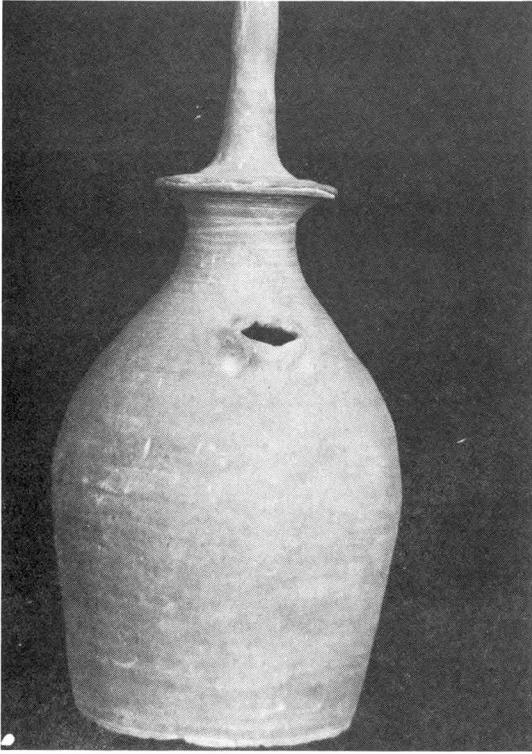
(圖24) 장군, 圓光大博物館



(圖 24) 장군, 圓光大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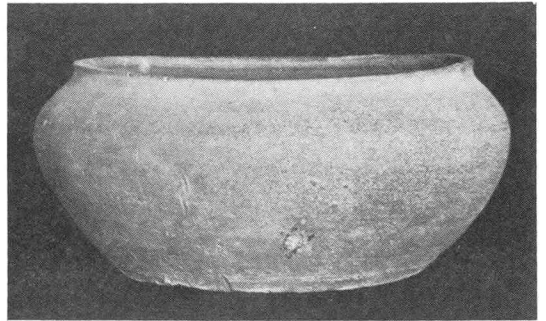
(圖25) 정병(淨瓶), 湖林美術館



(圖26) 정병, 圓光大美術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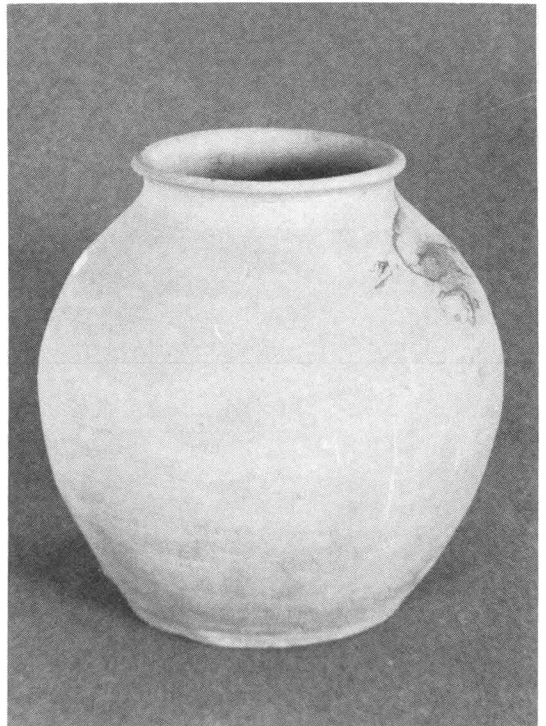
(圖27) 질그릇 양푼, 梨花子大博物館



(圖28) 질그릇 양푼, 圓光大博物館



(圖29) 질그릇 동이, 圓光大博物館



(圖30) 질그릇 항아리, 圓光大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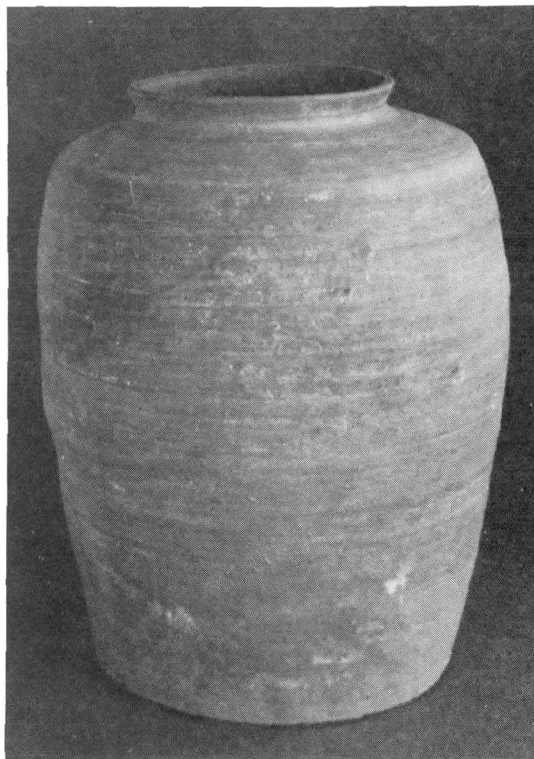
(圖31) 注口形질그릇단지, 圓光大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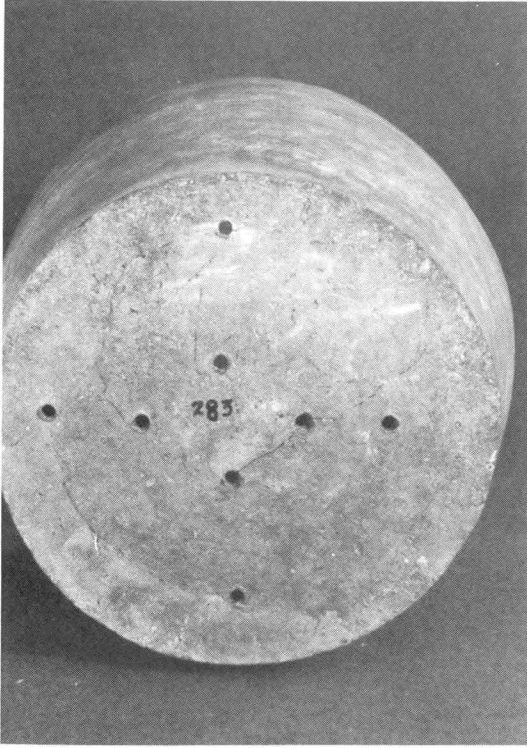
(圖32) 筒形항아리, 梨花女大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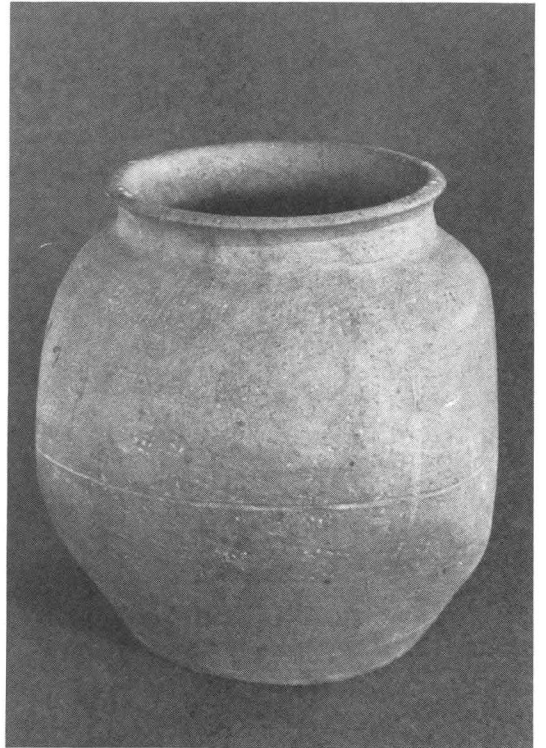
(圖33) 筒形항아리, 圓光大博物館



(圖34) 원통형 시루 (圓光大博物館)



(圖35) 円筒形시루바닥, 圓光大博物館



(圖36) 단지형편호, 圓光大博物館



(圖37) 廣口長筒扁壺, 圓光大博物館



(圖38) 참외형주전자, 國立中央博物館